

총선 위기감에 '얼굴' 바꾸는 日 집권당

스가, 중의원 해산도 못하고 퇴출 9년만에 예측불허 총재 선거 선호도 1위 고노나 기시다나 아베 영향력 벗어나 세대교체 주목

일본 집권 자민당이 총재 선거 투표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9년 만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쟁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자민당 총재를 겸직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사의를 밝힌 이후 4명의 국회의원이 차기 총리를 노리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총재 선거 당선자는 내달 4일 소집될 임시 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지명된다.

◇무파벌로 권좌에 오른 스가...중의원 해산도 못 하고 '퇴출'=코로나19 대응 미숙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과 지지율 급락이 스가가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포기한 이유로 꼽힌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스가를 간판으로 총재 선거에 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분석이 당내에서 대두했고 파벌이 없는 스가는 반발을 제압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통상 집권당 총재를 겸직하는 일본 총리의 핵심 권한 중 하나는 당 인사와 각료 임명이지만 스가는 1년 전 자민당 간부 인사와 조각을 단행한 것 외에는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

으로 인해 일본 총리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카드인 중의원도 해산도 실행하지 못했다.

◇아베 재집권 이후 9년 만에 예측 불허 총재선거=이번 총재 선거의 특징은 2012년 9월 이후 9년 만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부조사위원장,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 4명이 출마했다.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자민당 7개 파벌 중 기시다파를 제외한 6개 파벌은 지지할 후보를 한 명으로 압축하지 못해 사실상 각자의 판단에 따른 투표를 용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애초 투표 자체가 무기명 투표라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파벌 차원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지 후보가 통일되지 않아 표가 분산될 가능성은 더 커졌다.

◇유권자 선호도 1위는 고노...아베 견제=유권자 지지율은 고노가 큰 격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일본 주요 언론이 실시한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노가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로 대상자를 좁혀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1차 투표에서는 자민당 국회의원과 당원·당우표가 1대 1 비중으로 반영되지만 결선투표에서는 국회의원 표의 비중이 커진다.

고노는 당원·당우에서 지지자를 많이 확보했으나 국회의원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적다. 2·3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시다와 다카이치가 결선투표 때 연합하는 경우 고노가 역전패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

◇총선 앞둔 총재 선거...유권자 의식하는 젊은 의원들=결선투표에서 자민당 의원들이 고노를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중의원 임기 만료에 따라 11월께 총선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민당이 민심과 동떨어진 인물을 총재로 선출하고 그가 총리가 된다면 이로 인해 유권자의 반감을 살 수 있다. 지역구 기반이 취약한 3선 이하 의원들 사이에서는 총재 선거 결과와 약재가 돼 자신이 낙선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변화-세대교체 가능성에도 주목=이번 총재 선거가 2012년 자민당이 재집권한 후 출근이었던 아베의 영향력과 선을 긋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아소 부총리나 나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등만 80세를 넘긴 노장들이 실권을 내려놓고 젊은 세대의 역할이 부각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위기감에 당 체신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당선 횟수가 3회 이하인 자민당 중의원 의원 약 90명은 이달 10일 '당풍(당의 분위기가 쉼) 일신 모임'을 발족하고서 9년 가까이 이어진 아베-스가 정권이 밀어붙이기 정권 운영, 밀실 정치로 민심을 잃고 있다며 젊은 인재를 등용하는 등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아프간 여자 청소년축구팀 포르투갈 망명

전직 미장군 주도 '사커볼 작전' 선수·코치·가족 등 80명 탈출

'여성 인권 탄압'의 대명사로 불리는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14~16세 여자 청소년 축구팀을 해외로 망명시키는 '사커볼 작전'이 성공했다.

22일 AP통신에 따르면 여자 청소년 축구팀 선수 26명과 코치, 그들의 가족 등 80명이 19일 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도착했다. 이들은 아프간에서 해외로 망명시키는 '사커볼 작전'은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관리를 역임하고, 아프간의 특수부대에서 일했던 로버트 맥크리어리가 주도했다.

맥크리어리는 "포르투갈이 이들의 망명을 허가했다"며 "이 소녀들은 세계와 인류의 진정한 빛의 상징"이라고 기뻐했다. 이번 작전에는 국제축구연맹(FIFA)과 함께 전직 미군 장군, 미 중앙정보국(CIA) 베테랑 출신 인도주의 단체 설립자 등이 참여했다.

탈레반은 1차 집권기(1996~2001년) 당시 사리아(이슬람 율법)를 앞세워 엄격하게 사회를 통제했다. 특히 아프간 여성은 남성의 동행

없이 외출할 수 없었고, 취업 및 각종 사회 활동이 제약됐으며 교육 기회가 박탈됐다. 외출할 때는 부르카까지 착용해야 했다.

탈레반이 지난달 15일 20년 만에 정권을 다시 잡자 국제축구연맹(FIFA)은 탈레반 정권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아프간 여자축구 선수들을 탈출시켜 달라는 서한을 각국 정부에 보냈다.

탈레반은 재집권 후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한 여성을 총으로 쏘 죽였고, 내각에는 여성을 단 한명도 포함하지 않는 등 과거의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아프간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를 포함한 여자 스포츠 선수와 가족 50여 명을 호주 항공편으로 대피시켰다. 여자 청소년 축구팀 선수들과 가족도 성인 대표팀 선수들이 호주로 대피한 뒤 카탈을 떠나려 했지만, 카탈공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발이 묶였었다.

이들은 몇 주간의 기다림 끝에 아프간발 포르투갈행 전세기를 탈 수 있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포르투갈에 도착한 소녀들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축구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연준, 11월 테이퍼링 계획 발표 델타 변이로 계획보다 늦춰질 듯"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이 아닌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월가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CNBC방송이 시장 참가자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현지시간)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과반인 17명이 11월 테이퍼링 발표를 예상했다. 다음 날 끝나는 9월 FOMC에서 테이퍼링 계획이 나올 것이라는 응답은 9명에 그쳤다.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직전인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9월 발표설에 힘이 실렸으나, 델타 변이에 따른 경제 회복 차질로 테이퍼링 계획이 늦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전문가들이 늘어났다고 CNBC는 전했다.

응답자들은 연준이 11월 테이퍼링 발표 후 12월부터 매달 채권 매입 규모를 15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연준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연준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지난 4월 조사 때는 내년 2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내년 말 한 차례 인상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 /연합뉴스



조기총선 승리로 집권 3기 이어갈 트뤼도 캐나다 총리 제44대 캐나다 총선일인 20일(현지시간) 쥐스탱 트뤼도(중앙) 총리가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하고 있다.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은 이날 하원 전체 338개 의석 중 156개 의석을 획득해 121석을 얻은 보수당을 이겼다. 자유당은 2019년 총선 때보다 1석 줄었다. /연합뉴스

"중 과학자들 박쥐에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계획"

코로나19 발생 18개월전 미 기관에 연구비 지원 제안 거절

중국 과학자들이 코로나19 발생 전 전염성이 강한 변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트럼프 행정부 산하 기관에 연구비 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만든 웹 기반 조사팀 드래스틱(Drastic)이 공개한 문서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우한연구소 과학자들은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발생하기 18개월 전 박쥐 코로나바이러스의 새로운 '키메라 스파이크 단백질'을 포함한 피부 침투 나노입자를 원안성의 동굴 박쥐

에 전파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또 인간을 더 쉽게 감염시킬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강화된 키메라 바이러스를 만들 계획도 세운 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에 연구비 1400만 달러(160여억 원)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제안은 우한연구소와 밀접하게 일했던 피터 다작 '에코헬스 얼라이언스' 대표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팀에는 '박쥐 우먼'으로 불리는 우한연구소 소속 스텔리 박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DARPA는 "제한한 과제는 지역 사회를 위협에 빠뜨릴 것이 명백하다"는 등 이유로 연구 자금 지원을 거절했다. 드래스틱이 공개한 문서에서는 또 당시 연구팀이 박쥐 코로나바이러스에 인간 특유의 분절 부위(cleavage sites)를 삽입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가뭄에 아마존 수력발전소 가동 중단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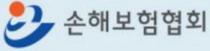
브라질 전력난 심화할 듯

브라질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에 건설된 세계 3~4위 규모의 벨루 몬치 수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빠졌다.

21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가뭄 장기화로 북부 파라주를 가로지르는 상구강의 물이 줄어들면서 지난 8월부터 벨루 몬치 수력발전소의

터빈 가운데 절반 정도만 가동되고 있다. 이 수력발전소의 하루 최대 전력 생산능력은 1만1233MW지만, 현재는 3%를 밀도는 300MW 수준까지 줄어든 상태다.

전문가들은 400억 헤알(약 9조 원)의 건설 비용이 들어간 벨루 몬치 수력발전소가 가뭄 때문에 제구실을 못 하면서 전력난을 더욱 심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돈돈한

실손의료보험!

지키자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